

첨부서류

2016 언론에 비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목 차 (일자순)

no	일자	언론사	제목
01	2015-01-07	한겨레	슈퍼맨' '오마베', 영유아 사교육 부추긴다
02	2016-01-12	베리스타알파	기사형 광고 비판 <사교육홍보 여전한 '조중동'교육섹션>
03	2016-01-12	아주경제	영재학교 선행과목 재학생 사교육유발 분석
04	2016-01-13	한국일보	울산교육청, 학업성취도 평가 공개 '논란'
05	2016-01-14	경향신문	5년간 서울과학고 5명 중 1명 의대 진학...과학고, 영재학교 취지 살리려면?
06	2016-01-19	평화방송라디오	[인터뷰] 구본창 "자유학기제 도농간, 소득간 학력격차 줄이는 방안 필요해"
07	2016-02-08	YTN TV	'시험'은 없지만 걱정은 '사교육'
08	2016-02-11	중앙일보	'김△△ 서울대 합격' '특목고 00명 합격' 소외감 주는 현수막 언제까지...
09	2016-02-11	EBS 뉴스	학원인지 독서실인지.. '명품 독서실' 꿈수 영업
10	2016-02-15	KBS NEWS	'합격' 현수막 논란... "학벌주의" vs "동기 부여"
11	2016-02-16	세계일보	[김현주의 일상 토크] 탈스펙 채용 "순진하게도 그 말을 믿니?"
12	2016-02-24	아주경제	교육부 올해 계획에 사교육 절감·고입·대입 개선방안 빠져"
13	2016-02-25	동아일보	영재교육 받으려고 학원원... 사교육 유발하는 영재교육원
14	2016-02-26	머니투데이	작년 1인당 사교육비, 2007년 조사 이래 최고치
15	2016-02-26	한겨레	사교육비에 허리 휘는데 비용 줄었다는 교육부의 '마술'
16	2016-02-26	경향신문	월 24만4000원...사교육비, 박근혜 정부 3년째 늘어
17	2016-03-02	주간동아	초교 4학년이면 늦다?!
18	2016-03-02	주간동아	빛으로 고액과외 취업시장 왜곡
19	2016-03-03	시사저널	사교육, 가정파괴범이 되다
20	2016-03-05	내일신문	[통계로 보는 사교육비]월평균 100만 원 이상 사교육비 지출 비율
21	2016-03-09	소년한국일보	사립초등 '편법 영어 교육'... 교육 당국은 '뒷짐'
22	2016-03-21	연합뉴스	실명 공개하며 강제추방...학원이 학생인권 침해 도 넘어
23	2016-03-21	한겨레	개인정보 노출·공포심 조장...학원들 도넬름 '나쁜 광고'
24	2016-03-21	동아일보	[단독]교육부, 대입 결과도 안보고 280억 평평
25	2016-03-25	충청투데이	수행평가 확대 '찬반 논란' 가열
26	2016-03-25	오마이뉴스	'수포자'를 막는 가장 강력한 공부법
27	2016-03-29	국민일보	사교육걱정, "선행교육규제법 무용지물, 10개지역 선행광고 113건 적발"
28	2016-03-30	충북일보	시험대신 수행평가 '갑론을박'
29	2016-04-01	시사인	우리가 속아온 뇌과학의 신화
30	2016-04-05	경향신문	[정리뉴스]서울 자사고 1단계 전형 자소서 폐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31	2016-04-06	EBS뉴스	[총선 공약 점검] 20대 총선에 바란다 - 공교육 정상화
32	2016-04-06	KBS뉴스	[청년리포트] @ "말만 청년, 청년 하지말고 기부터 살려주세요"
33	2016-04-08	한겨레	무늬만 학생부종합전형 걸러내야(
34	2016-04-20	한겨레	"'학종' 개선 또는 축소해야 한다" 커지는 목소리
35	2016-04-21	동아일보	취업-입시 때 대학간판 없애 사교육 막자
36	2016-04-22	SBS뉴스	[한수진의 SBS 전망대] 학생부종합전형은 부모 능력에 달렸다?
37	2016-04-28	연합뉴스	"학생부 전형으로 교육 양극화·사교육 심화...개선 시급"(종합)
38	2016-04-28	한겨레	학생부 평가서 비교과 4개 제외해야
39	2016-04-29	서울신문	"동아리·봉사...학교가 더 피곤해져" 고2의 한숨
40	2016-04-29	중앙일보	학생부종합전형 뜨자, 사교육업체 "고교 교사 모셔라"
41	2016-04-29	EBS뉴스	학생부종합전형 확대..논란도 '계속'

42	2016-04-29	SBS뉴스	사교육 부채질하는 소논문...'대학도 공범' 지적
43	2016-04-30	동아일보	대입 학생부 종합 전형, 사교육 부채질
44	2016-05-01	연합뉴스	학생부 전형 늘자 고교·학원 과도한 '스펙 경쟁'...부작용 속출
45	2016-05-08	한겨레	교사 "학종 전엔 책도 못읽혀" 학부모 "아무리 애써도 기회 안와"
46	2016-05-09	한겨레	[왜나면] '학벌 타파' 시효, 끝나지 않았다 / 송인수
47	2016-05-10	조선일보	"자유학기제는 선행학습 기회" 사교육 부추긴 학원 28곳 적발
48	2016-05-20	뉴스1	사교육걱정,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거리서명
49	2016-05-24	연합뉴스	서울 학원 영업시간 '밤 10시 제한' 조정되나
50	2016-05-26	국민일보	서울 학원 영업시간 밤 11시까지 연장 안된다
51	2016-06-06	경향신문	학생·학부모 사교육 걱정 여전히 '사교육 의식조사' 중단한 교육부
52	2016-06-06	한겨레	어른은 주40시간 일하겠다면 학생은 주80시간 공부하랴?
53	2016-06-07	뉴스1	출신학교로 차별한 로스쿨 특별감사 하라
54	2016-06-07	한겨레	로스쿨 학벌 카스트제' 일파만파 "한양대, 입학전형 정보공개 하라
55	2016-06-08	오마이뉴스	출신학교 차별이라는 괴물, 왜 못보나
56	2016-06-10	오마이뉴스	김상봉 교수 "학벌 사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57	2016-06-14	아주경제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 80% 유사...양극화에 세금 낭비
58	2016-06-14	연합뉴스	시민단체 "대학 재정지원 수도권 편중...지방대 몰락 초래"(종합)
59	2016-06-14	경향신문	교육부 대학재정지원 사업은 왜 같은 대학이 계속 선정될까..."평가지표가 같아서"
60	2016-06-23	한국대학신문	시간강사를 위한 대학 정책이 없다
61	2016-06-22	경향신문	서울대 구술고사는 가짜 학생부종합전형"...수학·과학 34% 교육과정 벗어나
62	2016-06-22	한겨레	서울대 구술고사는 가짜 학종... 수학 문제 60%가 대학과정
63	2016-06-27	교수신문	정부 재정지원사업 "교육·연구에 도움 안돼" 70.4%
64	2016-06-27	국민일보	있는 집 애들만... 한국 수학 양극화 OECD 최악수준
65	2016-06-29	주간동아	'학종'이라면 "불법이라도 좋다"
66	2016-06-29	경향신문	'저소득층' 학생 위한 선행학습을 특목고까지 이용?...'공교육정상화법' 논란
67	2016-06-29	전자신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웃어라, 수포자!' 발간
68	2016-06-29	연합뉴스	서울 유아영어학원 하루 5시간 교습...비용 연 1천만원"
69	2016-06-30	경향신문	'솔로몬반, 면학관...' 성적 따라 자습실도 따로 쓰나요?
70	2016-07-04	머니투데이	월 200만원 넘는 영어유치원, 단속 못하는 이유는...
71	2016-07-05	오마이뉴스	최저임금 1만 원과 야자 폐지, 무슨 관계냐고?
72	2016-07-05	한국일보	10개 대학 자연계 논술전형, 고교 과정 벗어나 출제
73	2016-07-15	한국대학신문	대학구조개혁법 통과되면 사회적 합의 필요
74	2016-07-18	뉴스토마토	더민주 "출신학교차별금지법으로 사교육비 부담 줄여야"
75	2016-07-19	뉴스1	"수포자 없애자" '수학 대안교과서' 개발착수
76	2016-08-07	연합뉴스	교육계 "이대 사태 계기로 대학재정지원사업 재점검 해보야"
77	2016-08-11	뉴스1	'학종' 대비 교내 경시대회, 강남·전북 격차 8.7배
78	2016-08-17	부산일보	학생부종합전형 늘수록 불공정성 우려도 확산
79	2016-08-19	대학저널	학원 합격 홍보물 게시 관행 제동
80	2016-08-21	중도일보	현정부 대학평가는 대학교육의 질만 하락
81	2016-08-23	연합뉴스	새 초등 1~2 수학교과서, 페이지 줄어 더 어려워져
82	2016-08-23	경향신문	더 어려워진 초등 1·2 수학
83	2016-08-23	한겨레	국어 시간에 한글 자음 배우는데, 수학 시간엔 문장쓰기?
84	2016-08-24	베이비뉴스	유아대상 영어학원 불법 교습행위 실태 심각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사교육 유발요인 분석결과 보도 (2015-01-07 한겨레)

# “슈퍼맨’ ‘오마베’, 영유아 사교육 부추긴다”

시민단체, 방송 분석 결과 비판  
 “영유아 발달에도 적합하지 않아  
 엄격히 제재할 법규정 마련해야”

최현주 사교육걱정 연구원이 <슈퍼맨이 돌아왔다>(KBS)의 2015년 1~11월 48회분을 분석한 결과, 약 73%인 35회에서 유료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방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영유아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인지발달 위주의 사교육 제품·프로그램 홍보라고 최 연구원은 분석했다. 사교육걱정은 “예를 들면 26개월 유아가 학습지로 한글 학습을 하는 모습 등을 여과없이 보여주면서 우리 사회의 비뚤어진 영유아 사교육 열풍을 확인시켰다”고 설명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기사형 광고 분석 보도 (2016-01-12 베리스타알파)

교육뉴스  
스페셜

## 사교육홍보 여전한 ‘조중동’ 교육섹션.. 학기중 심해져

기사형 광고 비중.. 조선 40.9%, 동아 37.1%, 중앙 21.7%순

김경 기자 | inca@ventas-a.com

### 내신대비부터 경시대회 준비까지... 합리적 비용으로 수준높은 학습을



**합리적 비용으로 수준높은 학습을**

합리적이고 수준 높은 학습을 위한... (text continues)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기사형 광고의 예시로 든 조선일보 교육섹션의 기사형 광고, 하늘교육 에듀홀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광고지만 기사로 둔갑, 독자 판단에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재학교 선행과목 재학생 사교육유발 분석 (2016-01-12 아주경제)

“영재학교 선행과목 재학생 사교육 유발...일반종합대학 진학 후 인정도 못 받아”

구분	필수과목	소계	기본선택	심화선택	소계
수학	수학 I (4) 수학 II (4) 미적분학입문(4) 미적분학 I (3) 학통과통계(3)	18	미적분학 II (3) 선형대수학(3)	미분방정식(3) 정수론(3) 수학세미나 I (2) 수학세미나 II (2)	
과학	기초물리학 I (3) 기초물리학 II (3) 기초화학 I (3) 기초화학 II (3) 기초생물학 I (3) 기초생물학 II (3) 기초지구과학 I (3) 기초지구과학 II (3)	24	일반물리학 I (3) 일반물리학실험 I (1) 일반물리학 II (3) 일반물리학실험 II (1) 일반화학 I (3) 일반화학실험 I (1) 일반화학 II (3) 일반화학실험 II (1) 일반생물학 I (3) 일반생물학실험 I (1) 일반생물학 II (3) 일반생물학실험 II (1) 환경학개론(2) 천문학(3) 관측천문학(3) 지구물질과학(3) 야외지질학및실습(2) 대기과학(3) 대기과학실험(1) 해양환경의이해(3)	고급물리학 I (3) 고급물리학 II (3) 물리학세미나 I (2) 물리학세미나 II (2) 고급화학 I (3) 고급화학 II (3) 화학세미나 I (2) 화학세미나 II (2) 고급생물학 I (3) 고급생물학 II (3) 생물학세미나 I (2) 생물학세미나 II (2) 우주론(3) 지구과학세미나 I (2) 지구과학세미나 II (2)	33
정보과학	정보과학 I (2) 정보과학 II (2)	4	컴퓨터프로그래밍(3) 이산구조(3) 알고리즘(3) 정보과학프로젝트 I (3) 객체지향프로그래밍(3)	고급정보과학(3) 정보과학세미나(2) 정보과학프로젝트 II (3)	

경기과학고 제2과목 교육과정 과선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울산교육청, 학업성취도 평가 공개 ‘논란’ 비평보도(2016-01-13 한국일보)

울산교육청, 학업성취도 평가 공개 ‘논란’

교육부 “보통학력 이상 학생비율 자료 공개는 부당”



13일 학부모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 교육부는 2015년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교육부담실태 조사 발표 (2016-01-14 경향신문)

≡ 전체

경향신문

5년간 서울과학고 5명 중 1명 의대 진학...과학고, 영재학교 취...

입력 : 2016.01.14 16:11:57 | 수정 : 2016.01.15 14:20:52

### 8. 유의 사항

- 가. 본고는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과학영재학교로 의·치·약학계열 대학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본고 지원이 적합하지 않음
- 나.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나 본고 교육과정 운영상 학업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정된 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다. 합격예정자 중 학년말에 학교생활기록부Ⅱ를 제출받아 최종합격자를 선정하며 2학기 교육과정을 매우 불성실하게 이수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2016학년도 서울과학고등학교 입학전형 요강. 사교육걱정 제공

사교육걱정이 2013년과 2015년 수도권 지역의 고1 학생 2769명, 2051명을 대상으로 사교육 부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반고 재학생의 경우 월평균 30~50만원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과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열린[인터뷰] 구분창 (2016-01-19 평화방송라디오)

사회

[인터뷰] 구분창 "자유학기제 도농간, 소득간 학력격차 줄이는 방안 필요해"

Home > 뉴스 > 사회

폰트 + -  기사보내기 



\* 구분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 PBC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운재선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자유학기제 취지 자체는 바람직해"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안상진 부소장 인터뷰 (2016-02-08 YTN TV)


## '시험'은 없다지만 걱정은 '사교육'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나쁜 현수막 찾기 캠페인 (2016-02-11 중앙일보)

**J 중앙일보**

[천인성 기자의 교육카페] '김△△ 서울대 합격' '특목고 00명 합격'

 천인성 기자

설 연휴를 앞둔 지난 5일, 이색적인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이 진행하는 '나쁜 현수막(플래카드) 찾기'입니다.

시민이 '나쁜 현수막'이 붙은 학교·학원의 담벼락·복도 등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면 단체가 이를 교육청에 알려 개선을 요구하겠다는 겁니다.

이 단체가 꼽은 나쁜 현수막은 학교·학원의 입시 실적 홍보물입니다. 명문대·특목고에 진학한 학생 이름, 출신 학교, 사진 등을 담은 것을 말하죠.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본창 국장 인터뷰 (2016-02-11 EBS 뉴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나쁜 현수막 캠페인 보도 (2016-02-15 KBS NEWS)

KBS NEWS

뉴스 TV엔 없다 프로그램 날씨

뉴스 > 사회 > 뉴스 9

### ‘합격’ 현수막 논란... “학벌주의” vs “동기 부여”

입력 2016.02.15 (21:40) | 수정 2016.02.16 (08:29) 뉴스 9

표준 화질 | 고품질 | 키보드 컨트롤

합격 현수막 논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특정한 학생 1,2명을 송가원 위한 광고물이고 아이들을 성적 경쟁 특정한 학생 1,2명을 위한 광고물이고 (아이들을) 성적 경쟁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광고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고요.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기업 채용 현황 분석 보도 (2016-02-16 세계일보)



한편, 일부 공기업의 채용전형이 지나친 스펙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 관련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공기업 30곳 등을 대상으로 신규 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 대부분이 학력 제한을 두고 있었으며 지나치게 많은 스펙을 요구하고 있었다.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부 사교육비 비판보도 (2016-02-24 아주경제)



# 아주경제

## “교육부 올해 계획에 사교육 절감·고입·대입 개선 방안 빠져”

👍 0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영유아 사교육비도 2018년이나 시행을 한다는 계획은 문제 해결 의지를 의심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단체는 정부 여당의 중선 공약으로 최근 새누리당이 5년 내 사교육비 50% 절감 방안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이를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업무 영역에서는 누락돼 교육의 영역에서 최대 민생 영역이 누락된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고교입시 전형 제도가 '영재학교-특목고/자사고'- 전국단위 자율고-중점학교-일반고 등 순서로 전형이 이루어지는 비공정한 전형으로 고교 간 서열화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선해 공정한 입시전형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대학 입시 제도가 여전히 눈물전형, 특기자 전형의 존치로 기형적인 대입제도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학생부 전형 등도 비교과 영역의 비중이 커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수시 확대가 특권 학교를 비밀스럽게 우대하는 전형으로 악용된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패를 규명하고 바로잡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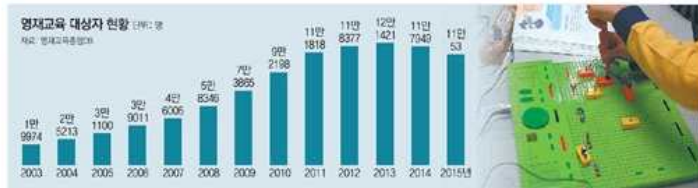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재교육원 출제 문제 분석 결과 보도 (2016-02-25 동아일보)

**dongA.com 뉴스** 오피니언 스포츠 연예 스튜디오 동아오토 부동산 VODA

**영재교육 받으려고 학원行... 사교육 유발하는 영재교육원**

유덕영기자 | 입력 2016-02-25 03:00:00 | 수정 2016-02-25 16:01:42

넘쳐나는 영재교육 실태 진단



교육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교육청 부설 영재교육원의 출제 문제를 분석한 결과 선행학습을 하거나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가 다수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교육비 통계 분석 보도 (2016-02-26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작년 1인당 사교육비, 2007년 조사 이래 최고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현 정부 들어 3년째 증가"... "교육부, 사교육 미참여 학생까지 계산에 포함" 비판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 입력 2016.02.26 06:00

기사

소셜댓글(0)

기사공유

가 + -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명목) 변화 추이 (단위: 만원)



- 2014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명목)는 사교육비 조사 이래 최대치였던 2009년 사교육비(명목)와 같아졌음  
 - 2015년에는 그보다 2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자료: 교육부 통계청 사교육비조사(2015), 본 단체 교육통계센터 재구성

한겨레

# 사교육비에 허리 휘는데 비용 줄었다는 교육부의 '마술'

등록 :2016-02-26 08:20 수정



사회 많이 보는 기사

1. [단독] '비선 실세' 경운회 씨 횡성 땅 6300여평 매입
2. [한겨레 프리즘] 국공합작 이라고? / 이춘재
3. 고 김관홍 잠수사 기억하는 '꽃다발 책 묶음'
4. 강도살인 무기수 "공범 있다" 검찰에 옥중편지
5. "왜 주차 못하게 해"...관리소? 회장

이시각 관심정보

- 대한민국 하루 38명 자살, 알고보니
- 로또 1등번호 "이미 정해져.." 리스
- 치아교정 가격, 부담없이 무이자할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통계센터가 교육부 통계청 자료를 재구성 해보니, 과목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교육비 분석 보도 (2016-02-26 경향신문)

- 초·중·고생 2007년 이후 최고치...미참여 빼면 월 35만5000원
- 교육부 "방과후 선행 제한 완화" 시민단체 "사교육 감소 못 시켜"

1인당 평균 사교육비 단위:만원



자료 : 교육청·통계청 사교육비조사(2015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재구성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채용시장현황 분석 보도 (2016-03-02 주간동아)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노용운 연구위원은 “NCS 도입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시험 형태로 문제를 예시함으로써 취업준비생들이 NCS 기반의 채용을 기존 인·적성 시험의 또 다른 변형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능력 기반의 채용이 자리 잡기 위해선 공공기관과 기업의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교육비 통계 분석 보도 (2016-03-05 내일신문)



### [통계로 보는 사교육비] 월평균 100만 원 이상 사교육비 지출 비율

서울, 경기, 인천지역 고교 1학년생 2051명을 대상으로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지출한 월평균 사교육비를 물어본 결과, 일반고는 30만 원에서 50만 원이 44.6%로 가장 많았고, 50만 원에서 100만 원 미만을 살펴보면 전국단위 자사고(59.2%), 과학고/영재학교(45.1%), 광역단위 자사고(45.0%), 외국어고/국제고(40.4%) 순이었다. 이중 외교와 국제고는 내신 반영 교과목을 영어로 한정된 이후 사교육비 지출 경향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박홍근 국회의원 공동자료 2015년 9월)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활동 중요성 보도 (2016-03-03 시사저널)

### 사교육, 가정파괴범이 되다

치솟는 사교육비 '에듀푸어' 양산... "공교육 계 역할 못하기 때문"

송용철 기자 | sec@sisapress.com | 승인 2016.03.03(목) 18:07:56 | 1377호

2,715

트윗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학원 밀집 지역 © 시사저널 고성준

이렇다 보니, 시민단체들이 과도한 사교육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부의 역할에만 기대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사교육 풍토 개선 방안으로 △고등학교와 대학의 서열 체제 완화 △ 결과 중심의 대입 전형을 과정 중심으로 재편 △노동시장에서 학력이나 학벌에 따른 차별 문제 척결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정책 제안이나 입법 추진 등을 하고 있다. 또 학부모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다양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교육 강화가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과제라는 입장이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은 "사교육이 활개를 치는 건 공교육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교육이 정상화돼야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7년도 대입시행계획 분석 보도 (2016-03-21 동아일보)

### [단독]교육부, 대입 결과도 안보고 280억 평평

일반고 출신 신입생 감소에도,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 15개대 지원

동아일보 | 입력 2016.03.21, 03:02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7학년도 대입 시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일부 대학은 어학특기자나 논술 등 특목고 학생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고교 교육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편법 영어교육관련 보도 (2016-03-09 소년한국일보)

## 사립초등 '편법 영어 교육'... 교육 당국은 '뒷짐'

문일요 기자 moon5w1h@snhk.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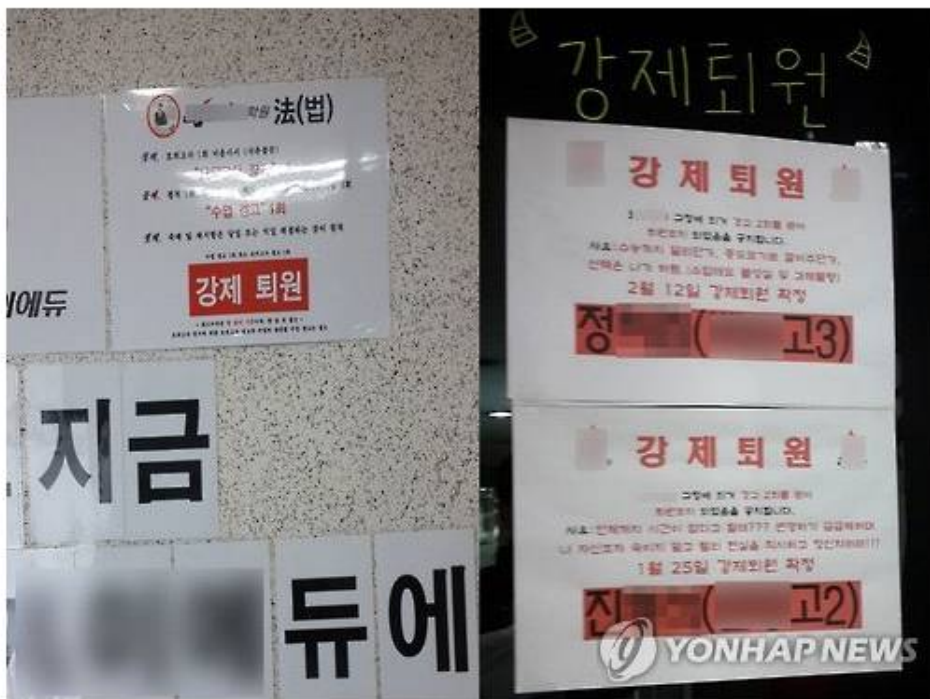
"어차피 막지도 못할 텐데."

최근 초등학교 영어 몰입 교육을 금지한 교육부의 고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뒤 나온 학부모들의 반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는 영어 몰입 교육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취재 결과 대부분의 사립초등학교에서는 올해도 편법 영어 교육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초등 1~2학년의 정규 교과에서 영어 과목을 배제하고, 3~6학년의 영어 교육을 일정한 시수(각 교과목에 규정된 시간 단위)로 제한한 교육부의 고시가 내려진 건 지난 2012년. 이후 4년이 지난 지만 변한 건 아무 것도 없다. 교육부와 시교육청은 올해도 별다른 조치 없이 새학기를 시작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학원가 인권침해 보도 (2016-03-21 연합뉴스)

## 실명 공개하며 강제추방...학원가 학생인권 침해 도 넘어



실명 공개하며 강제추방...학원가 학생인권 침해 도 넘어  
 (서울=연합뉴스) 경기도 평촌의 한 학원이 강제로 퇴원시킨 학생의 신상정보와 퇴원 사유를 공개한 게시물을 학원 벽면에 붙였다. 2016.3.2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  
 yonglae@yna.co.kr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학원가 나쁜 광고 캠페인 결과 보도 (2016-03-21 한겨레)

한겨레

개인정보 노출·공포심 조장...학원들 도넬은 '나쁜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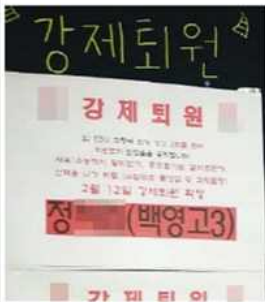
등록 : 2016-03-21 20:07 수정 :



일상 공개하며 강제퇴원

실명·사유 공개해 조롱

학교성적표 그대로 게시



학생인권침해 심각

'사교육걱정' 전국 10개 지역 조사

사회 많이 보는 기사

1. [단독] '비선 실세' 경운회 씨 횡성 땅 6300여평 매입
2. [한겨레 프리즘] 국공합작 이라고?
3. 밤심으로 된다, 우리 도시 공무원
4. 고 김관홍 감사사 기억하는 '꽃다발 책 묶음'
5. 강도살인 무기수 "공범 있다" 검찰에 옥중편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행평가 확대 관련 보도 (2016-03-25 충청투데이)

수행평가 확대 '찬반 논란' 가열

시민단체 찬성·교총 반대 주장, 학생평가 개정안에 의견분분

홍서운 기자 classic@cctoday.co.kr 2016년 03월 25일 금요일 제7면 승인시간 : 2016년 03월 24일 19시 35분

먼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교육시민사회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4일 성명을 내고 찬성의 뜻을 밝혔다. 지필평가에서 수행평가 중심의 전환은 학교평가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비 경감에도 도움을 주는 등 바람직한 학교 평가의 개선조건을 마련해줄 것이라는 게 단체 측의 주장이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포자 신분세탁프로젝트> 출간 (2016-03-25 오마이뉴스)

# '수포자'를 막는 가장 강력한 공부법

[서평] 신나는 수학 공부를 위한 <수포자 신분 세탁 프로젝트>

16.03.25 10:13 | 최종 업데이트 16.03.25 10:13 | 글: 강서희(heeing) | 편집: 최은경(nuri78)

수포자를 양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수포자 신분세탁 프로젝트>는 수포자를 양산하지 않도록 초중고 전반에 걸쳐 수학교습법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다. 시민단체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의 <수포자 없는 입시플랜>프로젝트 일환으로 지난해 5월 12일부터 6월 16일까지 열린 6회 연속 학부모 수학강좌 <수포자도 웃는 신나는 수학>을 묶은 책이다.

수학은 한국사회에서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학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대학이 결정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은 수학 사교육시장에 어마한 자본을 투입하고, 아이들은 학원에 시달린다. 그런데 정말 시키면 잘하는 것이 수학일까? 정답은 아니다.



▲ 수포자 신분 세탁 프로젝트

© 시사IN북

관련사진보기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행교육규제법 위반 적발 보도 (2016-03-29 국민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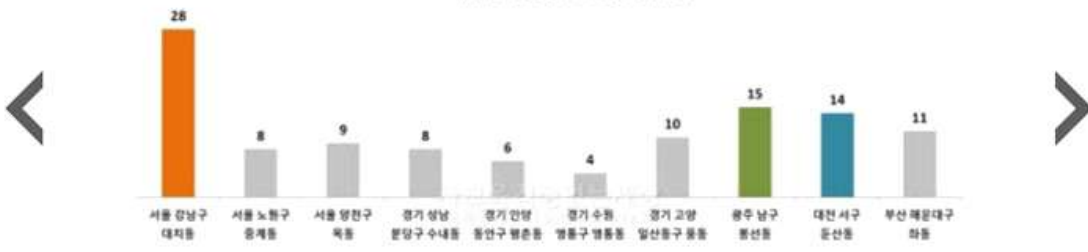
시상 7 일제간사

## 사교육걱정, "선행교육규제법 무용지물, 10개지역 선행광고 113건 적발"

입력 : 2016-03-29 11:18

10 10 10 10 10

2016 지역별 선행광고 현황 (단위: 개)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전국 10개 지역 사교육 업체 선행교육 광고 실태를 시민들과 함께 조사한 결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시민교육강좌 지상 중계 (2016-04-01 시사인)

우리가 속아온 뇌과학의 신화

뇌과학의 눈부신 발달 이후 몇몇 나라에서는 과학에 기반한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엔 아직도 뇌에 관한 엉터리 선전이 나온다.

신성욱 (과학 저널리스트) webmaster@sisain.co.kr 2016년 04월 01일 금요일 제445호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자사고 자소서 비판 보도 (2016-04-05 경향신문)

**[그림1] 자사고 자기소개서 단기특강 학원 안내**

◆◆ 2016학년 특목/자사고 대비 원서-면접 과정 안내 ◆◆

■ **외국어 및 국제고**  
 ▲ 접수기간 : 1차(재원생) - 7.10(금)-17(금) / 2차 - (재원생+외부생) - 수시접수  
 ▲ 진행개요  
 - 원서 작성 및 1:1 첨삭지도(내신기간에는 작성하지 않음)  
 - 모의면접실시(1:1 면접 + 실전대리그룹면접)  
 ▲ 오리엔테이션 : 1차-7.18(토), 오후 6:30~, 한국유도원 5층 / 2차-개별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

■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 : 외대부고, 삼산고, 하나고, 인천하늘고, 천안복일고등**  
 ▲ 접수기간 : 1차(재원생) - 7.10(금)-17(금) / 2차 - (재원생+외부생) - 수시접수  
 ▲ 진행개요  
 - 삼산고: 정규수업12회+전문가실전문면접4회(실전집단토론면접2회포함) 총16회  
 - 용인외대부고: 정규수업14회+전문가실전문면접4회 총18회  
 - 하나고: 정규수업18회+전문가실전문면접4회 총22회  
 ※ 자기소개서는 담당강사와 개별메일로 수시첨삭, 2회차 이후 수업은 면접대비집중수업  
 ※ 신청 접수 후, 7.20-25일 기간 동안 학교별 반배정이 이루어지고, 7월 29일부터 수업진행  
 ▲ 오리엔테이션 : 1차-7.18(토), 오후 6:30~, 한국유도원 5층 / 2차-개별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

■ **지역단위 모집 자사고 : 보안고, 한대부고, 중동고, 휘문고등**  
 ▲ 접수기간 : 8.10(월)-21(금), 재원생만 접수 가능합니다.  
 ▲ 진행개요  
 - 원서 작성 및 1:1 첨삭지도, 모의면접실시  
 ▲ 오리엔테이션 : 8.22(토), 오후 6:30~, 별관 지하1층

■ **상담 및 접수처 : 송파본원 ☎ 02-401-1074 / 광진본원 ☎ 02-457-646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5일 성명을 내고 "자사고는 상식적이고 당연한 조치를 이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총선공약 비교 분석 보도 (2016-04-06 EBS뉴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기업/공기업 채용분석 결과 보도 (2016-04-06 KBS뉴스)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많다.

교육관련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이 대기업 22곳, 공기업 30곳을 대상으로 신규 채용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 22개 민간 대기업 중 20개사(90.9%)가 대졸(예정)자로 학력을 제한해 채용하고 있었다. 나머지 2곳도 공고상 학력 제한은 없지만 입사 지원서에 학력 가입란을 뒤 사실상 학력 제한을 두고 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학종실태파악 및 대안 토론회 결과 보도 (2016-04-08 한겨레)

한겨레

# “무늬만 학생부종합전형 걸러내야”

‘사교육걱정’, 입시토론회서 지적

고난도 면접·교외 스펙 요구 등

서울대·고려대·서강대 ‘꼼수’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종의 실태 파악 및 대안 모색을 위한 연속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구분창 사교육걱정 정책대안연구소 정책2국장 은 “교육부가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학종을 늘리도록 권장하면서 일부 대학이 학종의 취지에 어긋나는 ‘꼼수 전형’을 학종으로 눈속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학생부 종합전형 개선 방안 제시 보도 (2016-04-20 한겨레)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실태 파악 및 대안 모색을 위한 연속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출신학교차별금지법>제정 운동 보도 (2016-04-21 동아일보)

## “취업-입시 때 대학간판 없애 사교육 막자”

이은택 기자 | 입력 2016-04-21 03:00:00 | 수정 2016-04-21 04:13:08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나서

취업과 입시에서 학력 차별을 금지하는 법 제정을 시민단체가 추진하고 나섰다. 뿌리 깊은 '학력 줄 세우기' 문화와 그 폐단을 없애자는 취지다.

교육 관련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26일부터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국민운동본부를 만들고 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사걱세는 "사교육비 부담의 근본 원인은 교육이 아니라 채용시장과 대학 체제 같은 사회 문제"라며 "취업 과정에서의 학력 차별 문제는 모든 학부모도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학생부종합전형 대담 (2016-04-22 SBS뉴스)

## [한수진의 SBS 전망대] 학생부종합전형은 부모 능력에 달렸다?

10,497

입력 : 2016.04.22 11:19 | 수정 : 2016.04.22 13:45

1 2



\* 대담 :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학생부종합전형 비판보도 (2016-04-28 연합뉴스)



### "학생부 전형으로 교육 양극화·사교육 심화...개선 시급" (종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일부 대학들, 학생부종합전형 취지에 역행"  
"동아리·독서활동 등 비교과 경쟁 내몰려...폐지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시민단체가 대학입시에서 날로 비중이 커지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교과 지식을 묻는 구술 고사를 전형 요소에 포함하는 등 학생부종합전형의 도입 취지에 역행하는 일부 상위권 대학의 전형 운영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입 학생부종합전형 비판 보도 (2016-04-28 한겨레)

### 한겨레

## “학생부 평가서 비교과 4개 제외해야”

사교육걱정 '학종' 개선책

“부모 배경따라 큰 격차나”

구본창 정책2국장은 “수없이 많은 비교과 활동으로 학교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걸 기획·평가 하고 피드백하는 일까지 제대로 이뤄지는지 의문”이라며 “교육과정이나 수업 개선에 투자해야 하는 에너지와 역량이 비교과 활동에 소진되는 상태로는 학종이 학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밖에 사교육걱정은 △서울 주요 대학이 학생부 외에 엄격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두거나 구술 면접을 실시하는 ‘가짜 학종’이 학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재하고 △교사추천서를 폐지해 학교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대안도 제시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학생부 종합 전형 비판 보도 (2016-04-29 서울신문)

## 서울신문 사회

교육

### “동아리·봉사...학교가 더 피곤해져” 고2의 한숨

2018학년도 대입 '학생부만으로 23.7% 선발' 한다는데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교과 지식을 묻는 구술고사를 전형 요소에 포함하는 등 학생부 종합전형의 도입 취지에 역행하는 일부 상위권 대학의 전형 방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 비판 기자회견 보도 (2016-04-29 중앙일보)

중앙일보

## 사회

검찰·법원 교육 사건사고 복지노동 지역 건강

### 학생부종합전형 뜨자, 사교육업체 “고교 교사 모셔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교과활동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동아리·봉사활동·경시대회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며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교내 수상 실적과 인증 자격시험, 독서활동, 자율동아리 등 4개 영역은 입시에 반영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학생부전형전형 비판 기자회견 보도 (2016-04-29 EBS뉴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교육 유발 대입전형 기자회견 보도 (2016-04-29 SBS뉴스)

**SBS 뉴스**  
뉴스 프로그램 취재파일 비디오머그 이슈 + 뉴스플러스 SBS 8 뉴스 스프스뉴스

### 사교육 부채질하는 소논문... '대학도 공범' 지적

김정윤 기자 ✉  
입력 : 2016.04.29 21:17 | 수정 : 2016.04.29 22:30

1,321

0 0

f t y g+ N

8 NEWS 시청자 참여 <2016 SBS 캠페인> 함께 만드는 기쁨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입 제도 분석 기자회견 결과 보도 (2016-04-30 동아일보)

최신기사 | 정치 | 경제 | 국제 | 사회 | 문화 | 의학과학 | 사람속으로

### “대입 학생부 종합 전형, 사교육 부채질”

유덕영기자 | 입력 2016-04-30 03:00:00 | 수정 2016-04-30 03:00:00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이 전형에 포함된 일부 요소가 학부모의 개입과 사교육을 유발한다며 교내 경시대회, 각종 인증 자격 등을 평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부 종합 전형에 있는 자기소개에서 자격 취득 여부에 대해 작성이 가능한 '경제 이해력 검증시험(TESAT)' '국어능력인증시험' '한국사 인증' 등을 준비하려면 학교 교육과정만으로는 어려워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독서활동도 학생이 지원하려는 대학과 전공에 맞춰 사교육 기관을 통해 관리를 받기도 한다.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과도한 사교육비 유발 입시제도 비판 보도 (2016-05-01 연합뉴스)

### 학생부 전형 늘자 고교·학원 과도한 '스펙 경쟁'...부작용 속출

강남 공립고, 수백만원대 연구과제비 학생 부담 논란  
일부 학원, 컨설팅 비용으로 수백만원 요구하기도... "교육 양극화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대입의 '주류'로 자리 잡은 학교생활기록부 전형에 단 몇 줄의 평가를 넣기 위해 일부 고교와 사교육 업체들이 학생들을 과도한 '스펙' 경쟁에 내몰면서 교육의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구본창 정책국장도 "고교생 R&E는 정부나 대학-고교 연계를 통해 이공계 전공 교수의 지도 아래 소논문 프로젝트를 재능기부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수익자 부담을 요구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며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사교육업계 '극성 마케팅' 수백만원 호가... "학생부전형 대폭 개선 필요"

고교생 R&E 활동은 주로 과학이나 영재학교, 과학중점학교로 선정된 일반계 고교에서 심화학습의 한 형태로 이뤄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학입시 학생부종합전형 등에 '스펙'으로 기재하려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 따르면 실제로 학원들은 이공계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대학에 출강하는 시간강사를 '교수'로 포장해 학부모들에게 접근한다. R&E 활동 컨설팅을 해주겠다고 하며 학부모들에게 1인당 수백만 원의 상담비용을 부담시킨 뒤 조잡한 수준의 소논문 프로젝트를 '스펙'으로 포장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학종 관련 토론회 결과 보도 (2016-05-08 한겨레)

한겨레

교사 “학종 전엔 책도 못읽혀” 학부모 “아무리 애써도 기회 ‘와’

학생부종합전형 찬반 가열

진로진학정보원 토론회 교사들

“공교육정상화” 긍정평가 쏟아내

이슈청원 사이트 반대서명 2천명

“스트레스 줄이기커녕 애들 목죄”

학종관련 기사에 순식간에 댓글

■ [왜냐면] ‘학벌 타파’ 시효, 끝나지 않았다 / 송인수 (2016-05-09 한겨레)

한겨레

◀ [왜냐면] ‘학벌 타파’ 시효, 끝나지 않았다 / 송인수

‘학벌없는사회’라는 시민단체의 해산 소식이 화제가 되었다. 특히 이 단체가 해산하면서 남긴 선언문의 파장이 결코 가볍지 않다. 요약하면 이렇다. “한국 사회는 학벌사회이고 현재의 입시 경쟁과 교육의 왜곡은 학벌사회와 무관치 않다. 그러나 자본의 독점이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학벌조차 권력을 얻는 실질적 통로가 되지 못한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접고 새 운동을 모색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 소식에 나는 심란했다. 4월26일은 <한겨레> 기자가 그 단체 대표에게 해산의 이유를 취재하는 날이었지만, 공교롭게도 우리 단체가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운동’을 출범시킨 날이기도 했다. 우리 운동의 취지는 “입시와 채용시장에서 출신학교로 아이들을 차별하는 행태를 법률로 금지·처벌함으로써 입시 경쟁과 사교육 고통을 줄이자”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학벌 타파 시도는 여전히 절박하다. 통계청이 2009년부터 매년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교육비 지출 이유 중 부동의 1위는 ‘채용 시장에서 출신학교를 중시하는 관행’이다. 이를 부모들의 낡은 생각이라 폄훼할 수도 없다.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기업채용 과정 차별 관행 실태조사’에서 시민들은 채용 때 학교 및 학력 차별을 제일 심각한 차별로 느낀다고 응답했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2011~2015)에서도 국민들 93.2%는 대학 졸업장 유무로 차별을 느낀다고 응답했고, 86.6%가 학벌 차별 해소 전망이 어둡다고 비관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인권 침해 광고 사교육 시장 개선 캠페인 보도 (2016-05-10 조선일보)

## "자유학기제는 선행학습 기회" 사교육 부추긴 학원 28곳 적발

교육청은 지난달 서울 지역 학원 2만6000여곳 중 시민단체 등에서 신고한 60개 학원을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한 정밀 점검을 실시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은 올해 초 비교육적이고 인권침해성 광고를 일삼는 학원들의 행태를 공개했었다. 예를 들어 '(자유학기제로) 시험을 보지 않을 때 공부를 더 해야 한다' '달라진 수능 준비는 초등부터'라는 광고로 사교육을 조장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서명 운동 보도 (2016-05-20 뉴스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기자 | 2016년 05월 16일 09:00



학벌차별 실태 퍼포먼스 '대학 점퍼 패션쇼' -학벌을 지우면 사람이 보인다(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 © News1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이 24일부터 7월말까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거리서명 운동에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쉼이있는 교육 캠페인 보도 (2016-05-24 연합뉴스)

## 서울 학원 영업시간 '밤 10시 제한' 조정되나

교육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번 개정안은 영업시간 규제 조례를 무력화하려는 학원업계의 끊임없는 시도에 호응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치동 학원가(연합뉴스 자료사진)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학원 11시 연장 영업 비판 보도 (2016-05-26 국민일보)

## “서울 학원 영업시간 밤 11시까지 연장 안된다”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 등 교육시민단체들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원 심야 영업시간 연장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보연 인턴기자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부 사교육 의식조사 중단 비판 보도 (2016-06-06 경향신문)

학생·학부모 사교육 걱정 여전한데 '사교육 의식조사' 중단한 교육부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그림 1] 2007 ~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 사교육 의식조사'의 학생용(좌)과 학부모용(우).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

[그림 2] 『사교육비조사』 통계정보 보고서' 중 조사항목 변경 사항 설명 내용

□ 2015년 조사항목 변경

○ MDEIS 이용자, 자문위원 의견 수렴('15.3.3~3.20. E-mail), 관계부처('15.3.5, 39.~4.6 나라e-정부협업시스템내 기관간 메모보고, 교육부) 회의결과를 반영하여 조사항목 수정 및 삭제

○ 2015년 사교육비 조사항목 개선

구 분	조사항목 수			2015 조사항목 변동사항		
	2014년	2015년	수정	삭제	추가	이동
학부모 사교육비조사	213	196	2	-	4	-11
학부모 의식조사	26	0	-	22	-	-4
학생 의식조사	21	0	-	20	-	-1
단원조사	1	1	-	-	-	-
방과후학교 교사	0	17	-	-	1	+16
계	251	214	2	42	5	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

사교육걱정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교육 의식조사'의 조사항목이 '사교육비 조사'와 내용이 중복되고, 통계청 '사회조사'와 유사해 중복 조사를 피하기 위해 중단했다. 하지만 '사교육 의식조사'는 사교육 참여 이유, 정보 출처 등 사교육 관련 전반적인 분야를 묻는 조사이고, '사교육 조사'는 사교육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만 묻기 때문에 각각 목적과 내용이 다른 조사라고 사교육걱정은 주장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학원 휴일휴무제 관련 보도 (2016-06-06 한겨레)

“어른은 주40시간 일하겠다면 학생은 주80시간 공부하랴?”



kimyh@hani.co.kr

교육 시민단체들은 법정 공휴일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들의 영업을 아예 제한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심이있는교육시민포럼은 '아동노동 철폐의 날'(12일)을 계기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시교육감이 '학원 휴일 휴무제'를 조례로 제정해 법정 공휴일에 학원을 쉬게 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14일 열 계획이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법정 공휴일은 우리 사회가 다 같이 쉬기로 합의한 날이니만큼 청소년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며 "성인들은 '주 5일, 하루 8시간(주 40시간)' 일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청소년은 주당 70~80시간 공부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헌 청소년인권단체 아수나로 활동가도 "대부분 직장인들은 주말에 가족과 함께 쉬는데 청소년들은 주말에도 학원에 나가 '공부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좋은교사운동이 2014년 전국 초중고 학생 645명 및 학부모 44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일요일에 학원에 다닌다'고 답한 학생은 고등학생 중 63%, 중학생 중 44%였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출신학교 차별하는 한양대 로스쿨 비판 보도 (2016-06-07 뉴스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정문에서 '로스쿨 출신학교 차별입학 부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16.6.7.뉴스1 © News1 구운성 기자

최근 서울소재 모 사립대 로스쿨이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출신대학 등급제'를 운영했다는 의혹제기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시민단체가 진상파악을 촉구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한양대 로스쿨 입학정보 공개 기자회견 보도 (2016-06-07 한겨레)

‘로스쿨 학벌 카스트제’ 일파만파 “한양대, 입학전형 정보공개하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 정문 앞에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학 때 출신 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12,726명

10만인클럽 후원

OhmyNews 모든 시민은 기자다

# "출신학교 차별이라는 괴물, 왜 못보나"

공기업 10곳 중 4곳, 채용시 학력·출신학교 정보 여전히 요구

공기업 10곳 중 4곳이 채용과정에서 학력, 출신학교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총 30곳의 공기업 중 올해 4~5월 공개채용을 실시한 10곳을 대상으로 입사지원서 상의 학력기입란과 출신학교명 기입란의 유무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 거리서명 이들은 실제로 5월 26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상암 누리공 스퀘어를 비롯하여 전국 50여개 지역에서 거리서명을 시작했다



▲ 한양대 앞 기자회견 로스쿨 등 상급학교 입시와 취업단계에서 출신학교 차별실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20대 국회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기자회견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학벌사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상봉교소 강연 보도 (2016-06-10 오마이뉴스)

## 김상봉 교수 "학벌사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김상봉 전남대 교수 초청 강연회



▲ 김상봉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10일 오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학벌사회는 끝났는가?'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학 구조개혁 평가지표 분석 보도 (2016-06-14 아주경제)

2014년 사립대 지원 국고보조금 67.4% 수도권 집중

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공학계열의 졸업생 수를 늘리는 양적 증가가 아니라 소수의 인원이라도 적성이 맞는 학생들에게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양적인 증가에 집착하는 것이 문제로 인문계열을 줄이고 공학계열을 늘리면 적성도 맞지 않는 학생들이 공학계열로 진학해 적성도 맞지 않은 어려운 공부를 하게 되고 취업도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대학재정지원 사업의 대학별 지원금액과 사업 결과 얼마나 교육적 효과가 있었는지 상세한 정보 공개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가운데 교육부가 대학별 재정지원 현황 및 효과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 분석 보도 (2016-06-14 연합뉴스)

## 시민단체 "대학 재정지원 수도권 편중...지방대 몰락 초래"(종합)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4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결국 지원받는 대학에 몰아주는 방식이 되는 대학지원사업 평가지표를 전면 재검토하고, 서울과 수도권 대학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지방대의 몰락을 초래하는 대학지원사업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를 분석한 결과, 사업별 목적이 다른데도 평가지표가 80% 이상 유사해 선정된 대학이 다른 사업에도 선정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학 재정 지원사업 평가 분석 비판 보도 (2016-06-14 경향신문)



'대학공공성 실현 대학생 네트워크 모두의 대학' 회원들이 지난해 9월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 김영민 기자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학구조 개혁정책 토론회 보도 (2016-06-23 한국대학신문)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2일 토론회를 개최해 대학내 시간강사와 비정규직이 겪고 있는 문제를 진단했다.(사진=최상혁 기자)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대 구술고사 분석 보도 (2016-06-22 경향신문)

“서울대 구술고사는 가짜 학생부종합전형”...수학·과학 34% 교육과정 벗어나

배문규 기자 sobbhe@kyunghyang.com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다음날인 3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2017 대입 전략설명회'에서 학부모와 수험생들이 입시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있다. | 이준현 기자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대 구술고사 분석 보도 (2016-06-22 한겨레)

# “서울대 구술고사는 가짜 학종… 수학 문제 60%가 대학과정”

서울대 수시 일반전형 구술고사 문항 분석

전체 28.3%, 수학 61.5%가 대학 과정

일반전형 합격자 일반고 35.9%, 특목고 42.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경문 앞에서 '가짜 학생부종합전형'의 대표적인 요소인 구술고사의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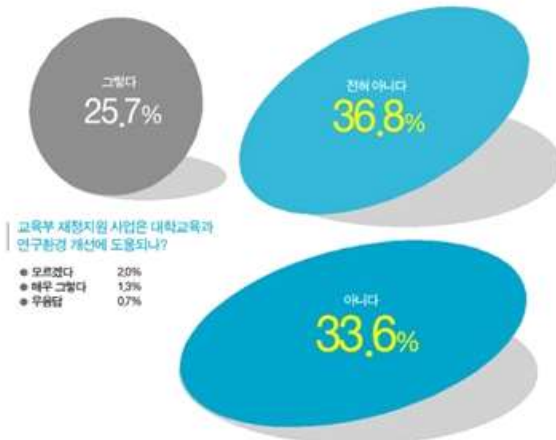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학구조개혁정책 설문조사 보도 (2016-06-27 교수신문)

## 정부 재정지원사업 “교육·연구에 도움 안돼” 70.4%

사교련-사리세, 교수 152명 대학구조개혁(평가)정책 설문조사

2016년 06월 27일 (월) 11:05:11

김종근 기자 mong@kyosu.net



“프라임사업, 효과적이지 않다” 56.6%  
교육부-대학 ‘돈’으로 엮인 ‘갑을 관계’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교육과정 관련보도 (2016-06-27 국민일보)



시사 > 전체기사

# 있는 집 애들만... 한국 수학 양극화 OECD 최악수준

입력 : 2016-06-27 17:32 / 수정 : 2016-06-27 23:13

보고서는 "산술 능력은 구직부터 시민사회 참여, 건강에 이르기까지 성인 삶의 광범위한 결과들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며 "모든 학생이 동등하게 수학을 배우도록 하는 교육과정 등을 마련해 더 유동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송인수 공동대표는 "우리나라 수학 교육과정은 학습량이 많고 난이도가 높아 사교육 접근이 가능한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사이의 격차가 클 수밖에 없다"며 "정규교육과 자기주도학습 만으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학 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입시컨설팅 현황 보도 (016-06-29 주간동아)

## 주간동아    커버스토리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라이프 · 건강&과학 · 스포츠 · 피플

커버스토리 | 대학을 훌치다

### '학종'이라면 "불법이라도 좋다"

유령회사 차려 '학생 CEO' 만들고, 발명·특허 출원도 유행...고액 입시컨설팅 천태만상



6월 4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린 '서울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주관의 '학생부종합전형' 설명회 현장. [동아일보]

2015년 11월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서울 강남지역 입시컨설팅업체 10곳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운영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의 절반 이상(62.5%)이 분당 비용 1만 원을 상회했다. 이는 강남교육지원청이 학원 교습비 가이드라인으로 정해놓은 분당 5000원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다. 참고로 입시 단과학원의 수업료는 분당 125원이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방과후 선행교육 논란 보도 (2016-06-29 경향신문)

'저소득층' 학생 위한 선행학습을 특목고까지 이용?...'공교육정상화법' 논란

백윤규 기자 sobell@kyunghyang.com



경향신문  
www.kyunghyang.com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방과후 학교 수업을 하고 있다. | 강윤중 기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9일 "교육부 기준으로 10% 저소득층 학생들이 있다는 빌미로 지정되면 나머지 90% 학생들까지 선행학습을 받을 수 있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한다"면서 "자사고나 외고도 지정될 가능성이 커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에 역행한다"고 밝혔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웃어라 수포자!> 발간 보도 (2016-06-29 전자신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웃어라, 수포자!' 발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책을 통해 제시하는 수학에 관한 잘못된 생각 12가지는 △학원에 보냈더니 수학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수학은 양이 많고 어려운 과목이라 선행학습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초등학교 입학 전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 사교육 실태 보도 (2016-06-29 연합뉴스)

## "서울 유아영어학원 하루 5시간 교습...비용 연 1천만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조사...가장 비싼 곳 연 2천200여만원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서울의 유아 영어학원의 교습비가 대학 등록금의 세 배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출세우기 교육현장 보도 (2016-06-30 경향신문)

## '솔로몬반, 면학관...' 성적 따라 자습실도 따로 쓰나요?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서울의 한 고등학교 도서관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공부에 몰두하고 있다. | 서성일 기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올해 조사결과 전국 14개 교육청에서 여전히 성적 우수자만을 위한 '성적 중심 특별반'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성적 차별 면학실 금지 조례가 시행중인 시도교육청에서조차 성적 우수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 사교육 시장 현황보도 (2016-07-04 머니투데이)

### 월 200만원 넘는 영어유치원, 단속 못하는 이유는...

실상은 유치원인데 '학원법' 관리대상...교습비·교습시간 구체적 기준 없어

[그림2] 우리나라 4년제 대학등록금과 유아대상 영어학원 교습비 비교

4년제 대학 등록금과 유아대상 영어학원 교습비와의 비교 (단위:만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는 "취학전 영유아들이 과도한 학습량에 노출될 수 있다. 정부가 학습시간과 프로그램, 강사기준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도 해야 한다"면서 "영어유치원의 과도한 교습비는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자극,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고 위화감 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입 논술분석 보도 (2016-07-05 한국일보)

### 10개 대학 자연계 논술전형, 고교 과정 벗어나 출제

현직 교사들이 작년 문항 분석  
연세대 54% · 이화여대 39% 등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문항 출제  
대학에서 배우는 개념 나오기도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이 지난해 출제한 자연계 논술 전형 문제 가운데 상당수가 고등학생이 배우는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대학의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민단체 합동 검증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적발되는 대학들은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유미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교육부 차원에서 실태를 파악해본 뒤 사실일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자율 지도를 하거나 고교 교육 정상화 사업을 평가할 때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mailto:fact@hankookilbo.com)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운동 보도 (2016-07-05 오마이뉴스)

## 최저임금 1만 원과 야자 폐지, 무슨 관계냐고?

[주장] 인간의 기본적 삶 보장하는 최저임금 인상, 교육에도 영향 미칠 것



▲ '9시 등교제'를 해도 잠이 부족한 이유? 아이들은 피곤하다. 9시 등교제를 해도, 야자를 자율적으로 시행한다고 해도 말이다. 결국, 입시경쟁교육을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적성에 따라 선택한 직업이 그 무엇보다 자아존중감과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것, '1만원 최저임금제'에 그 답이 있다.



▲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100만 국민운동"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는 홈페이지이다. (<http://www.goodbye.or.kr/>)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련사진보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도 꼭 제정되어야 한다. 이 법이 있으면 전문직의 경우에도 대졸 학력이 최소한의 조건으로 설정되었을 때 출신학교가 어디냐에 따라 차별받지는 않을 것이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학구조개혁법 분석과 대안 보도 (2016-07-15 한국대학신문)

**뉴스 대학정책**

**"대학구조개혁법 통과되려면 사회적 합의 필요"**  
사격세 토론회 ...구조개혁법 분석과 대안모색

김소연 기자 | stary@unn.net



▲ 14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주최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 및 법률안에 대한 종합 대안을 모색한다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기자회견 보도 (2016-07-18 뉴스토마토)

**더민주 "출신학교차별금지법으로 사교육비 부담 줄여야"**



더불어민주당 이상호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와 관련해 지난 14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국회 앞에서 회견을 열고 국회가 조속히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사교육걱정 정책대안연구소 안상진 부소장은 "학부모의 천문학적인 사교육비 지출 의식에는 자녀가 출신학교로 차별받지 않게 하려는 마음이 담겨있다"며 "출신학교로 자녀가 차별받지 않고 능력대로 취업할 수 있다면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는 논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 대안교과서 제작 보도 (2016-07-19 뉴스1)

### "수포자 없애자" '수학 대안교과서' 개발착수

사교육걱정 "2020년까지 중학교 전 과정 대안교과서 제작"

(서울=뉴스1) 김현경 기자 | 2016-07-19 16:45:10 송고 | 2016-07-19 17:43:10 최종수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들이 '수포자 없는 입시 플랜 국민운동 출범식'에서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뉴스1DB© News1

한 교육시민단체가 주입식 설명으로 수학 포기자(수포자)를 양산하는 현 교과서를 대체할 '수학 대안교과서' 제작에 착수한다.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학 재정지원사업 설문조사 보도 (2016-08-07 연합뉴스)

### 교육계 "이대 사태 계기로 대학재정지원사업 재점검 해 봐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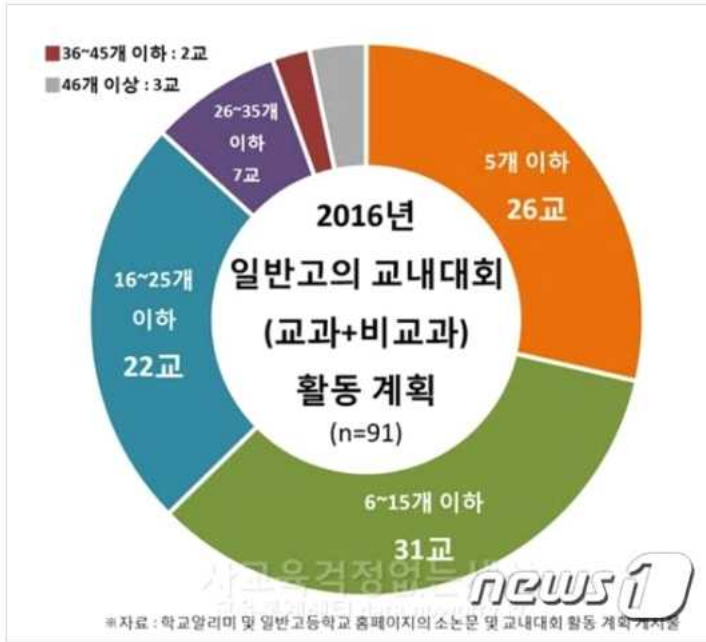
이화여대 "평생교육 단과대학 설립 협의"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6월 대학교수 1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이 교육과 연구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70.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고교 비교과활동 실태 조사 결과보도 (2016-08-11 뉴스1)

'학종' 대비 교내 경시대회, 강남·전북 격차 8.7배

67개 교내대회 개최하는 학교도...7곳은 운영계획 없어



2016년 9개 지역 일반고 교내대회 운영 개수 분포(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 News1

11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전국 9개 지역 91개 고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교내대회, 소논문(Research&Education R&E) 등 비교과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학생부종합전형 개선방안 토론회 보도 (2016-08-17 부산일보)

학생부종합전형 늘수록 불공정성 우려도 확산

사회 ▾

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입력 : 2016-08-16 [19:52:38] | 수정 : 2016-08-18 [14:32:08] | 게재 : 2016-08-17 (20면)



▲ 대입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이 지역 학교별 여건 차이로 불공정 경쟁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용산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의실에서 열린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방안 토론회 모습.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학원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규제 관련 보도 (2016-08-19 대학저널)

### "학원 합격 홍보물 게시 관행 제동"

인권위, 시·도교육청에 감독 강화 요청...교육계, 환영의 목소리



▶ 좌측부터 A학원의 명문대 합격자 명단, B학원의 16년간 특목고 합격자 누적 명단, C학원의 기말고사 성적우수자 명단(출처: 사교육걱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원 등 사교육 기관이 특정대학 진학 홍보를 넘어 중고등학교 진학과 학교에서 공개하지 않는 석차나 성적 등 내신정보까지 임의로 가공, 홍보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들을 호도하고 불필요한 사교육을 조장하는 등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번 인권위의 의견 표명 결정에 따라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즉시 관련 법령과 조례, 규칙 등의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서열화와 학벌주의를 조장하는 학원의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규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부 대학구조조정 정책분석 보도 (2016-08-21 중도일보)



### 현정부 대학평가는 대학교육의 질만 하락

21일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이 발표한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분석 보도자료'에 따르면 모든 대학을 일정한 평가 지표를 통해 평가를 실시해 등급을 매기고 등급에 따라 정해진 감축률에 맞춰 정원을 감축하는 현정부의 정원감축 방식은 모든 대학을 일일이 평가하는 방식이어서 대학의 자율성이 크게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는 "전임교원 30%를 줄이지 않을 때 소요되는 예산은 1조2844억 원으로 2016년 한해 정부가 프라임사업, CK사업 등 대학재정지원사업으로 사용한 1조5000억 원에 비해 적은 금액"이라며 "대학재정지원사업 대신 전임교원의 임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부작용 많은 현재의 등급별 정원감축보다 한결 대학교육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 "새 초등 1~2 수학교과서, 페이지 줄어 더 어려워져"

송고시간 | 2016/08/23 10:54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분석..."선행학습 여전히 유발"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새로 개발된 초등학교 1, 2학년 수학교과서 내용이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게 기술되는 등 문제점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교육걱정 분석에 따르면 우선 1, 2학년 새 수학교과서에 포함된 교육과정 분량이 기존 교과서에 비해 6.5%밖에 줄지 않았으나 페이지 분량은 30% 이상, 특히 수학익힘책은 절반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더 어려워진 초등 1·2 수학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 한 자릿수 덧셈·뺄셈 생략하고 바로 두 자리 덧셈·뺄셈 교육

사교육걱정에 따르면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초등 1~2학년군의 교육과정 축소분은 6.5%였는데 현장검토본 '교과서'의 페이지 분량은 30% 이상, '익힘책'은 절반으로 줄었다. 특히 기존의 2009 개정 교과서에서 1학년 1학기 교과서는 171쪽이었는데 이번 현장검토본은 124쪽으로 줄었으며, 익힘책은 140쪽에서 77쪽으로 줄었다. 2학년 1학기 교과서도 90쪽, 익힘책은 40쪽이 줄었다. 페이지 분량이 줄면서 각 단원 분량이 줄었고, 소단원 내용도 축약되거나 생략됐다. 기존 2009 개정 교과서에선 0의 개념을 두 개 소단원에서 가르쳤는데, 이번 현장검토본은 하나로 줄었다. 1학년 1학기에 한 자릿수 덧셈과 뺄셈을 생략하고, 2학년 1학기에 바로 두 자리 덧셈과 뺄셈을 가르친다. 교육과정은 그대로 둔 채 페이지 수만 무리하게 줄이다 보니 설명만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 초등교과서 분석 보도 (2016-08-23 한겨레)

## 국어 시간에 한글 자음 배우는데, 수학 시간엔 문장쓰기?

내년 초등 1학년 수학 교과서  
 한글 선행 교육 전제로 구성  
 일본 수학 교과서는 문장 없어  
 사교육걱정 “대폭 수정해야”



국어 교과서에서 자음과 모음 학습하는 시기에 배우는 초등 1학년 수학 교과서 현장 검토본에 문장을 쓰도록 유도하는 문항이 배치돼 있다. 내년 초등 1학년 사용을 목표로 현재 개발 중인 교과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

사교육걱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새 교과서는 2015년 9월에 확정 고시된 후, 개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유아대상 불법 영어학원 실태 보도 (2016-08-24 베이비뉴스)

## "유아대상 영어학원 불법 교습행위 실태 심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부 명확한 지침 마련해야"

기사본문

베이비뉴스, 기사작성일 : 2016-08-24 11:35:38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올바른 학원문화 조성을 위해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관련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단속할 것을 24일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난해 서울시내 유아대상 영어학원 70개를 조사한 결과, 57.1%에 해당하는 40곳이 교습과목 운영을 위반하고 있었다. 이들 학원의 교습과목을 살펴보면 예체능이 38곳으로 가장 많았고, 수학이 36곳, 과학이 31곳, 심지어 외국어를 가르치는 어학원임에도 한국어(국어, 한글)를 가르치는 곳도 70곳 중 10곳이나 있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는 해당 기준과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본 단체의 수차례 의견서에 어떠한 답변도 없이 그저 묵묵부답인 상황"이라며 "실용외국어 습득을 위한 학원이 예체능, 사회, 과학, 수학은 물론 누리과정과 국어(한글)까지 가르치고 있는 실태를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